

There was land for sale, and Vasili Andreevich wanted to buy it. In fact, he wanted to arrive early enough to buy the property before it went up for auction. So he loaded up his sledge and foolishly ventured out into the darkness of a long Russian winter's night. The wind was harsh, the snow was heavy, and eventually Andreevich lost his way. When his sledge got stuck in a snowdrift, Vasili had to spend the night trying to survive a raging blizzard. "He lay and thought: thought.....of the one thing that constituted the sole aim, meaning, pleasure, and pride of life – of how much money he had made and might still make, of how much other people he knew had made and possessed.....and how he.....might still make much more". But Vasili's grandiose plans came to nothing. In the morning, when the villagers dug his sledge out of the snow, they found the man frozen stiff. The story of Vasili Andreevich, which was told by Leo Tolstoy, shows how "peopl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trap and into man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men into ruin and destruction" (v.9).

매물로 나온 땅이 있었는데 바실리 앤드리비치는 이 땅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일찍 도착해서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빨리 이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의 길고도 긴 어두운 겨울 밤에 바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썰매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눈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결국 앤드리비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썰매가 눈더미에 박히자 바실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며 그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한 인생의 목적, 의미, 기쁨, 그리고 자랑에 대해서 –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벌 수도 있을지, 그가 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벌고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가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하지만 바실리의 거창한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그의 썰매를 파냈을 때 얼어붙은 바실리를 발견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바실리 앤드리비치에 대한 이야기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9 절)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1. The Anatomy of Error and Unbelief (vv.3-5)

There were false teachers in the church at Ephesus who were in danger of meeting the same unhappy end, and for the same reasons: they were in love with money. Before mentioning their greed, however, the apostle Paul reminds Timothy of their basic theological error: "If anyone teaches false doctrines and does not agree to the sound instru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o godly teaching" (v.3). The words of Christ and his teaching are the measure of truth and error in religion and ethics. Whatever seriously departs from his standards of truth and right is fatally flawed and so heresy or false teaching. His instruction is "sound" (literally "healthy") because it alone has the power to restore genuine moral and spiritual health to those who accept it into their lives – who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ark 1:15). When Paul adds "and to godly teaching" he may be thinking of the later apostolic teaching (such as in his own writings) which derives from that of Jesus and accords with it. Together the recorded teachings of Jesus in the Gospels and those of his apostles in the remainder of the New Testament form the final deposit of God-given truth. Its hallmark is that it produces godliness in the heart and life (2 Timothy 3:16). By contrast the false systems promise personal fulfilment and happiness but never godliness.

에베소 교회에는 같은 이유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한 결말을 맞을 위험에 처해있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욕심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기본적으로 잘못된 신학에 대해 상기 시켜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3 절).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들은 신앙과 윤리의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기준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이단이거나 거짓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막 1:15) - 진정한 도덕과 영적인 건강을 회복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문자적으로 “건강한”). 바울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해 말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과 일치하는 사도의 가르침 (예를 들어 바울의 편지)을 생각하고 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의 나머지를 차지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의 특징은 마음과 삶을 경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딤후 3:16). 이와 반대로 거짓 가르침은 개인적인 만족감과 행복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경건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rue religion and false religion always comes down to Jesus Christ –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The first question to ask of any cult or any religion is, “What does it teach about Jesus Christ?” Most cults – Mormons and Jehovah’s Witnesses would be good examples – are wrong about the person of Jesus Christ. They deny his deity, and so reduce him to the status of a mere human being. What other world religions deny, primarily, is the work of Jesus Christ. They do not accept his sacrifice for sin or his bodily resurrection. But true religion demands a true understanding of Jesus Christ, both in his person and in his work. This understanding comes only through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진실된 종교와 잘못된 종교의 차이점은 결국엔 항상 예수 그리스도 – 예수님이 누구고 무엇을 하셨는지 – 입니다. 그 어떤 이단이나 종교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 좋은 예가 됩니다 –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신분으로 격하시킵니다. 다른 세계적인 종교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희생과 육체적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오직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러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Why does the false teacher fall into such error and unbelief? Well, by his reaction to Christ’s truth, the false teacher shows that “he is conceited and understands nothing” (v.4). The real cause of the false teacher’s reaction to godly teaching is that he is puffed up with pride. Heresy is not so much an intellectual problem rooted in the mind as a moral one rooted in the heart. Pride is an inborn prejudice against the truth and has a blinding effect on the person’s spiritual powers. Under the claim to superior knowledge the heretical teacher is actually taken captive by a subtle form of ignorance. And “he has an unhealthy interest in controversies and quarrels about words” (v.4). Such an individual is spiritually sick – and the symptoms are an argumentative and critical spirit. If these disputes were about the truth and in defence of it they might be justified, since as believers we are told to contend earnestly for the faith (Jude 3). But such a person loves controversy for its own sake. He regards it as a mark of someone who is truly religious. But this type of controversy is normally based on ignorance and leads nowhere. Such controversial arguments “result in envy, strife, malicious talk, evil suspicions” (v.4). The destructive and divisive results of these controversies point to the evil root from which they arise. Those results are the total breakdown of trust and respect in the church community. Conflict, hostility and mutual vilification become an

accepted way of life. The evil root of pride produces a bitter harvest of broken relationships. Indeed there is no end to the conflict generated by such contentious attitudes.

왜 거짓 선생들은 이런 오류와 불신에 빠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거짓 선생의 반응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한 다”는 것이 드러납니다(4 절). 경건한 가르침에 대한 거짓 선생의 반응의 진짜 원인은 그가 교만 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지식의 문제라기 보다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자만심은 진실을 반대하는 선천적인 편견이며 사람의 영적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묘한 형태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4 절).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 그 증상은 논쟁을 즐기고 비판적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유 1:3) 만약 이 논쟁이 진리에 대한 것이거나 그 진리를 지키려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정당화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류의 사람들은 논란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는 논란이 있는 것을 진정한 종교인의 표증 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논란은 보통 근본적으로 무지함에서 시작되고 아무런 결론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이런 논쟁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초래합니다 (4 절). 이런 파괴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는 이 논란이 시작된 악한 뿌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회 안의 신뢰와 존중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갈등, 적의,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버립니다. 자만의 악한 뿌리는 깨진 관계라는 씁쓸한 결과를 안겨줍니다. 참으로 이런 논쟁하기 좋아하는 태도 때문에 만들어진 분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 2. Content with Christ (vv.5-10)

It is a measure of how far such false teachers may depart from the true intention of the gospel that they are able, without shame, to measure godliness by its monetary rewards. They thought that “godliness is a means to financial gain” (v.5). In other words, they were in the ministry for the money. How were these false teachers turning a profit? Well, remember that religion was big business in Ephesus, the home of the goddess Diana. So the false teachers may have tried to market Christianity. More likely, they were teaching an early version of the health-and-wealth (prosperity) gospel. They were not interested in religion for its own sake. Instead, they taught that good morals were the pathway to financial security. They had turned their training and position as religious teachers into a lucrative business.

부끄럼 없이 경건함을 재정적인 보상으로 여기는 것을 통해 거짓 선생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도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 했습니다 (5 절). 다른 말로 그들은 돈을 위해 사역을 했다는 것 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이익을 낸 것일까요? 다이아나의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종교는 큰 비즈니스 였다는 것을 기억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은 기독교를 상품화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초기 형태의의 건강과 부 (번영) 복음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신앙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의 교육과 지위를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Greed has always been a great danger for the church. This was true in the Middle Ages, when the sale of indulgences made salvation something that only money could buy, but it is equally true today – with catalogues full of religious books and merchandise and Christian television programs spending a great deal of time appealing for money. The world can hardly be blamed if it concludes that Christianity is mainly about money. The scandals of the church often involve money. This is why Paul himself was so careful in his use of money. He refused to “peddle the word of God for profit”, as he put it in hi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Paul understood that the Holy Spirit’s work does not require money.

탐욕은 교회에게 항상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면죄부의 매매를 통해 구원을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중세시대에도 사실이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돈을 달라고 호소하는 신앙서적들과 여러 상품들로 꽉 찬 카탈로그, 그리고 크리스천 방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주로 돈에 대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세상을 탓 할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의 스캔들은 보통 돈에 대한 것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던 것 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Godliness is not the means to financial gain. No, godliness is the gain. Paul says in v.6 tha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By “godliness” we mean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in the mind and the heart that is worked out through the Christian life. Such godliness is not merely gain, it is great gain. The great gain of knowing Christ is not only for this life, but it is also for the life to come. Faith in Jesus Christ is the ultimate investment because it yields eternal life.

경건함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경건함 자체가 우리에게겐 이익입니다. 바울은 6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과 마음으로 알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건함은 그저 이익이 아니고 굉장한 이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굉장한 이익은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Godliness is great gain, provided that we learn how to be content with our present circumstances. The word “contentment” was often used in Greek philosophy to describe a man who had all his resources within himself. He was completely self-sufficient. When Paul talks about contentment, however, he means something slightly different. A Christian is not self-sufficient, but Christ-sufficient. Anyone who has Jesus Christ has everything he or she needs. The trouble is that we are not always content. Some of our discontent comes from the natural frustration of living in a fallen world – we are waiting for Jesus to make everything new. But a good deal of our discontent also comes from not being satisfied with Jesus himself. We want something more or something else. Discontent robs every other experience of its God-given joy.

우리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경건함은 굉장한 이익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서 모든 자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만족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크리스천은 본인 힘으로 자급자족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자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 입니다. 우리의 불만족의 일부분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있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좌절감에서 나옵니다 -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족의 대부분은 예수님 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다른 것을 바랍니다. 불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The only way to make great gains is through "godliness with contentment". There are 3 reasons for this. The first is that "you can't take it with you". Here is the apostle Paul's version of that famous expression: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v.7). We see this in the case of our first parents. Adam and Eve came into the world with nothing, and they left the world with nothing.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God said to Adam (Genesis 3:19). The same was true of Job, the wealthiest man in the ancient world. He had fabulous possessions, riches beyond compare, but they were all taken away. In rapid succession he lost his oxen, his donkeys, his sheep, his camels, his servants, his children.....everything. When it happened, Job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and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Job 1:20-21). We see it in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Luke 12:13-21).

큰 이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을 통해서 입니다. 이것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7 절). 우리의 첫 조상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 3:19). 고대에 가장 부유했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의 소들, 당나귀들, 양들, 낙타들, 종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잇달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 1:20-21). 또한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눅 12:13-21).

The second reason to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is that what you have is enough (probably more than enough). If you come into the world with nothing, and leave with nothing, then what do you need in the meantime? Not much: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v.8). It may seem surprising that the Bible fails to mention shelter along with food and clothing. Yet the word for clothing means "covering", and thus also refers to shelter. Every Christian ought to be content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answer to Question 104 (what do we pray for in the fourth petition of the Lord's Prayer -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puts it well when it speaks of "a competent portion of the good things of this life". We do not need luxuries, only necessities. If God provides more than we need,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at. In fact, there are instructions for the rich towards the end of this chapter (vv.17-19) commanding them to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v.18). One good set of guidelines for sharing comes from the Evangelical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 produced by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in 1980: "We resolve to renounce waste and oppose extravagance in personal living, clothing and housing, travel and church buildings. We also accept the distinction between necessities and luxuries, creative hobbies and empty status symbols, modesty and vanity, occasional celebrations and normal routine, and between the service of God

and slavery to fashion. Where to draw the line requires conscientious thought and decision by us, together with members of our family”.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충분하고도 남을 것 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면 그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8 절).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는 나와있지만 살 곳에 대해 나오지 않는 것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입을 것이라는 단어는 “덮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4 번의 답 (우리는 주기도문의 네번째 줄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몫”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치품이 필요 없고 오직 필수품만 필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장 17 절에서 19 절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1980 년도에 로잔 세계 전도 위원회에서 만든 복음주의의 검소한 생활방식을 보면 나눔에 대한 좋은 가이드라인 중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는 낭비하는 것을 끊고 개인적인 생활, 입는 것, 사는 곳, 여행, 그리고 교회 건물에 대한 사치를 반대하기로 다짐 합니다. 또 우리는 필수품과 사치, 창의적 취미와 의미 없는 높은 사회적 신분의 상징, 겸손과 허영심, 가끔 있는 축하 행사와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유행의 노예 됨의 차이점을 인정합니다. 어디에 선을 긋느냐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양심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iscontent always wants something more or something else. It always thinks about what it lacks. But even when you get what you think you want – a new home, a better job, new clothes, a new phone, or whatever – you soon find that you are discontent all over again. Why? Because discontent is rooted in the heart. Discontent comes from what a man or woman is, not from what he or she doesn't have. This also explains why contentment is completely unrelated to how many possessions a person has. In fact, often the more possessions a person has, the more empty life becomes. A German philosopher observed that, “Gold is like sea water – the more one drinks of it, the thirstier one becomes”. But Christianity has more to offer and what it offers satisfies. What it offers is Jesus Christ, the true treasure of the soul. What the human heart really craves is not gold, but God. Anyone who comes to God through Jesus Christ finds meaning, purpose, joy and even satisfaction with life. Hymn 507, “O Christ, in You My Soul Has Found”, which we will sing at the end of the service this morning sums it up so well, doesn't it?

불만족한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거나 다른 것을 원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 새로운 집, 더 좋은 직업, 새로운 옷, 새로운 핸드폰 등 – 또다시 불만족스러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만족은 마음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만족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물이 많은지 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보통 소유물이 많을수록 인생이 더 허무 해집니다. 한 독일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바닷물 같다 –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하지만 기독교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그것들은 만족감도 줍니다. 기독교가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영혼의 보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마다 삶의 의미, 목적, 기쁨 그리고 만족도 찾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날 때 부를 찬송가 507 장 "O Christ, in You My Soul Has Found"에 정말 잘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ne man who discovered that Jesus Christ was all he really needed was the apostle Paul. Paul shared his secret to the Christians in Philippi: ".....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1-13). The secret of contentment is to be satisfied with Jesus Christ who dwells in the Christian through the Holy Spirit.

사도 바울은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그의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내가...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3). 자족의 비밀은 성령으로 크리스천들 안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것 입니다.

The third and last reason to be content with what God has given you is that discontent leads to disaster. Paul concludes this section: "Peopl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trap and into man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men into ruin and destruction.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Some people, eager for money, have wande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vv.9-10). One thing leads to another. First, there is the desire to get rich, which seems harmless enough. Then there is some temptation to get rich by immoral means. But that is actually a snare of the devil which leads to more and more evil desires. Eventually the greedy man plunges into ruin – that is moral failure in this present life – and finally destruction – that is spiritual death in the life to come.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하는 세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불만족은 참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9-10 절). 한가지가 다른 일들로 연결이 됩니다. 첫번째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해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혹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더 많은 악한 욕구들로 이어져 갈 마귀의 올무 입니다. 결국 욕심이 많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돌진하게 됩니다 - 현재 삶에서의 도덕적인 실패 - 그리고 종국적인 파멸 -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서의 영적 죽음 입니다.

Notice that it is not people who are rich who fall into this trap, but people who want to be richer than they already are. It is the love of money that causes the trouble. Money itself is alright – it can be used for many good and noble purposes. Greed is not rooted in money but in the fallen sinful nature of the human heart. As John Stott observes this passage from 1 Timothy is “not for poverty against wealth, but for contentment against covetousness”.

이 덫에 빠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주목 하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입니다. 돈 자체는 괜찮습니다 – 많은 좋고 훌륭한 일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돈에 뿌리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죄성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존 스토틀이 디모데전서의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 했듯이 말입니다 “가난과 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족과 탐욕에 대한 것이다”.

Notice as well that money is not the root of all evil, which is the way this verse appears in the King James version. Strictly speaking, there are many evils in the world that do not come from greed. Some come from the lust for power, or the desire for sex, or the longing for fame. If anything, pride is the root of all evil. But greed remains one radical source of evil – it is the kind of sin that leads to many other sins. As Paul says,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v.10a). Almost wistfully, Paul remembers what happened to some of the money-lovers he knew. They wandered from the Christian faith, of course. They gave up faith in Christ as the central desire and love of their life. They had to, because the love of God and the love of money are incompatible. Jesus said,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Matthew 6:24). Either you love God and use money, or you love money and use God to get it. Paul no doubt often witnessed this dilemma in the early church, maybe even in Ephesus. Later, he would lament the loss of Demas, who deserted him because he loved this world (2 Timothy 4:10). He would also warn that in the terrible times of the last days, people will be “lovers of money” (2 Timothy 3:2). Nor is it hard to come up with examples from the Old Testament. Consider Gehazi who we read about in 2 Kings 5:15-27. He was unhappy that Elisha was giving God’s grace away free to Naaman the Syrian. By the time he was finished, Gehazi had told lots of lies in order to “get something” from Naaman. But God witnessed his deception and theft, and Gehazi was punished with leprosy as a result. The wounds caused by greed are self-inflicted. The Bible means what it says: The love of money leads to no end of evil, and ultimately to eternal death.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이듯 돈이 모든 악함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 하십시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탐욕으로부터 오지 않는 악도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성적 욕망으로부터, 명성을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교만이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도 악의 근본적인 근원 중 하나이긴 합니다 – 많은 다른 죄들로 이어지게 하는 종류의 죄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10a 절). 바울은 거의 안타깝다는 듯이 그가 알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물론 크리스천의 믿음에서 벗어났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 6:24).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돈을 얻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아마 에베소에서든 이런 딜레마를 많이 목격했을 것 입니다. 후에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데마를 잃음에 애통해 합니다. 바울은 또 끔찍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 (딤후 3:2)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15-27 에 나오는 게하시를 살펴봅시다. 그는 엘리사가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사가 일을 끝내자 게하시는 많은 거짓말을 해서 나아만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와 도둑질을 하나님께서는 목격 하셨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은 자초한 것 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끝없는 악으로 이어지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The frightening thing, or course, is that so many of us have money-loving hearts. Our greed must be rooted out. The only thing to do is to repent of every covetous desire and ask God to fill us with love for Christ, which is what Vasili Andreevich did. As Vasili struggled vainly to keep himself warm during the last night of his life, he had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a conversion experience. He heard the call of God, responded in faith and repented of his greed. This is the way Tolstoy described his dying moments: “And again he heard the voice of one who had called him before. “I’m coming! Coming!” he responded gladly, and his whole being was filled with joyful emotion. He felt himself free and that nothing could hold him back any longer”. What Vasili Andreevich heard was the voice of God, calling him home. What he repented of was his greedy, money-loving heart. And what he discovered in the life beyond this world is the truth of what Paul said to Timothy: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1 Timothy 6:6).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실리 안드리비치가 그랬듯이, 모든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실리가 그의 생의 마지막 밤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개종(Conversion) 체험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믿음으로 답하고 그의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죽어가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그는 전에 그를 불렀던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갑니다!” 그는 기뻐하며 대답했고 온 몸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유 함을 느꼈고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바실리 안드리비치가 들었던 것은 그를 집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했던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찬 돈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 대해서 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밖에서의 삶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Amen 아멘